

밤 미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제1독서]..... 이사 9,1-6

[화답송] 시편 96(95),1-2ㄱ,2ㄴ-3,11-12,13
(©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음] 루카 2,1-14

[성가 안내]

- 봉헌성가: [9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성체성가: [98] 이사야 말씀하신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7] 천사의 찬송
- 파견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낮 미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제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시편 98(97),1,2-3ㄱ,3ㄴ-4,5-6
(© 3ㄴ)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인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02] 어서 가 경배하세
- 봉헌성가: [105] 사랑의 아기 예수
[103] 오늘 아기 예수
- 성체성가: [98] 이사야 말씀하신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7] 천사의 찬송
- 파견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A light will shine on us this day,
the Lord is born for u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hope, we rejoice this Christmas, for *a light will shine on us this day: the Lord is born for us*. On Christmas and each day this coming year, may we seek this Light before all else and allow it to radiate within our diocese, homes and communities.

Even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we experience within our world, nation and Church, we are filled with joyful hope as we celebrate the truth that Jesus, our Lord and Savior and the Light of the World, has dispelled the darkness. Therefore, with trust and confidence, we dare to pray for one another. We pray for all who lead and serve within the Church, that enlightened by the new radiance of God's incarnate Word, what we know in faith will shine through our deeds. We pray that God will show our civil leaders the way of truth, guiding them to defend the sacredness of all human life. We pray that the whole human family will imitate the Holy Family in practicing virtue and in the bonds of charity. We pray that those in need will experience the radiance of God's love in and through our generosity, goodness and sacrifices. Finally, we pray that we, who know God already by faith, may pass through the shadows of this world to reach the brightness of our eternal home.

Please be assured of a special remembrance at the Masses I will celebrate on Christma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Mary our Mother and Saint Joseph, may Our Lord Jesus Christ fill you with the gift of his peace and favor this Christmas and always.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 찬미예수님,

성 정 바오로 성당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축일입니다.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한 생명이 태어남은 가족의 기쁨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에 노숙자들의 식당 ‘십사일반’ 을 찾았습니다. 원주 노숙인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센터장 이상길 바오로에게서 노숙인들이 함께 엮은 시집 한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시집에서 노숙인 권혜경이 쓴 시 한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앞으로는 과거의 내가 어찌 살았던 간에 다 버리고
미래의 내 삶은 밝고 건강한 삶이길 바라는 마음을 살아야겠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인류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니,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산 도둑도 만나고, 풍랑에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살아 볼 만한 이 세상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삶이 고달프더라도 고향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이니 앞으로의 우리의 나날들은 밝고 건강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이 즐거울 때나, 고달플 때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태어나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일을 많이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덕분에 우리의 삶이 또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으로 행복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미드립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성 정 바오로 성당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아주 조금만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져서 구유에 새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변화되어
 평화를 가득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